

영화방송예술분야 종사자의 직업안전보건 특성 및 건강 보호방안 연구

이 관 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Research on the Health Prot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al Safety & Health in the Film and Television Artist

Kwan Hyung YI* Ph.D.

*Safety Researcrh Research Department, OSHR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veral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engaged in the field of the film and television artist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profession and working environment, safety recognition and education, safety activities, accident experience, and job stress survey.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s to be used for 302 worker directly interview research. Safety awareness level of himself or herself was "middle level" of 3.1 points. Those of colleagues and the general public were evaluated to be low as 2.8 points and 2.5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last 12 months, 4.6% of total workers have received an industrial safety health education for work-related accident or disease. Regarding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rk-related accident or having been exposed to work-related disease over the past 1 year, 20.2% of total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accident. 16.2% of total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work-related disease. And the workers are approximately one's own subjective feeling of physical symptoms that have appeared. In addition, the film sector workers in particular occupations men than women have higher job stress. Preventive education for industrial safety is required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Safety education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and to reduce accident. Safety and health guideline is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in order to prevent accident in advance. Finally, the actor and their staff members to reduce the stress, mental health care and education carefully needs to be in parallel. Also, when taking measures to reinforce safe work environment, it needs to be protected.

Key Words : Film and Television Artist, Industrial, Safety,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ve Education

† Correspondence : Yi, Kwan Hyung 400, Jongga-ro, Jung-gu, Ulsan, 681-230,
Republic of Korea, Tel : +82-52-7030-851, E-mail : khyi77@hanmail.net

Received July 16, 2014; Revision Received December 2, 2014; Accepted December 3 2014.

1. 서론

최근 3년간(2006~2008년) 영화산업 종사자수는 경기침체로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전체 한국 영화산업 종사자수는 30,561명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2,52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한국 영화산업 매출 규모는 2006년 36,836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3,8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3년부터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6.3%로 영화방송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2]. 방송영상산업 노동시장은 다른 산업부문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사회의 고용관계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데서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의 사회학적 노동경제학적 논의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또한 방송영상산업의 일자리는 내부 노동시장의 와해와 노동의 유연화 확산에 따른 비정규노동의 비중이 증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3-5].

방송영상제작스태프와 관련된 연구는 그다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고용관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국한된 보고서로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방송영상산업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방송의 상업화와 의무외주제작 제도가 도입된 1990년 말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고[6-8], 또한 불행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호와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배우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은 작가와 연출자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복잡한 제작과정에 상호의존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인 협업과정이다. 예를 들면, 국내 드라마의 제작에는 100여명 이상의 제작인력이 투입된다. 피디(연출), 촬영감독, 작가 이외에 미술, 촬영, 조명, 편집 분야의 기술스태프와 보조스태프들도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3]. 이제까지 기술·보조 스태프들은 자신의 역할에 비해 제대로 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창작적, 예술적 스태프의 주변에서 보조적인 역할로만 인식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본 조사가 이전의 조사와 다르게 조사연구의 대상을 영상문화예술과 관련된 비정규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즉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이들이 갖고 있고 직면한 노동특성과 산업안전보건

학적인 측면에서 건강과 안전상의 불평등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목적 및 대상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들이 앓고 있는 고용 및 근로조건 특성 그리고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타깃점을 찾는 것이다.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총 12개 분야로 나눈다. 여기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순수예술, 지식산업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영화, 방송, 연극)로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해당 직종은 주조연연기자, 보조출연 및 스타트연기자, 조명, 무대, 음향, 음향기술진, 연출 및 작가이다.

3. 방법 및 내용

조사목적을 충실히 하고자, 특수형태종사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조사방법은 1:1 직접대면 면접조사로 302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영화, 연극, 방송분야 종사자의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자각증상 및 작업관련성 및 심각성, 일과 관련된 사고부상,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 방법은 SPSS v18을 이용하여 x^2 -검정, 1원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4.1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영화, 방송, 연극분야별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보면,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66.9%, 여성이 33.1%, 연령은 남성이 평균 37세, 여성이 평균 33.6세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남성(81%)과 여성(19%) 종사자 비율은 8:2로 훨씬 남성 종사자가 높았으며, 직종에서 위험한 역할을 대역하는 스타트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 종사자(95.0%)가 많았다. 방송과 연극에서의 남성과 여성 종사자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졸업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연극 종사자의 경우 고학력인 대학졸업 이상이 전체의 84.3%를 차지하였다.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이 전체의 61.4%, 기혼이 34.2%, 사별 또는 이혼 등이 4.4%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42.8%, 100~200만원이 39.8%로 20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는 전체의 82.6%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이 높은 순은 방송, 영화, 연극 종사자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하루에 일하는 평균 시간¹⁾을 알아본 결과,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7시간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보면, 영화부문에서는 평균 일하는 시간이 12.3시간, 방송부문은 11.6시간, 연극부문은 정상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당 일하는 일수를 알아본 결과, 타 직종과 달리 고정적인 일 이 아니지만, 주당 평균 4.6일로 나타났다으며, 주당 근무일수 가장 많은 장르는 연극부문 종사자로 5.5일, 방송부문 종사자가 4.2일, 영화부문 종사자가 4.1일이며, 한 달에 평균 밤 근무일수²⁾를 알아본 결과,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밤 근무일수는 평균 5.91일로 나타났으며, 밤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장르는 영화부문 종사자로 8.0일, 방송부문 종사자가 6.8일, 연극부문 종사자가 2.9일로 나타났다.

4.2 사고(부상) 및 질병경험

지난 1년간 본인이 일로 인해 사고(부상)를 경험한 질문에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20.2%로 10명 중 2명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고경험이 가장 높은 장르는 영화분야 종사자로 전체의 29%, 그 다음이 방송분야 종사자가 19%, 연극분야 종사자가 가장 낮은 12.8%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분야 종사자 직종에서 스텐트 종사자가 가장 높은 사고를 경험한 경우로 전체의 52.5%, 방송분야 종사자 직종에서도 스텐트 종사자로 전체의 46%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스텐트 배우가 가장 높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르별로 사고경험 유무 점유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

으며, 직종과 사고경험 유무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장르는 영화와 방송분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본인이 일로 인해 사고를 경험한 종사자들의 사고유형을 보면, 과도한 힘 동작으로 인한 사고, 미끄러짐과 넘어짐, 충돌사고(차량충돌 포함) 순으로 가장 많았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에서 일로 인한 질병을 경험한 경우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보다 낮은 16.2%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질병경험 결과를 보면 사고경험에서는 스텐트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질병에서는 스태프 종사자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accident and illness experience on the work, the last year

단위: n(%)

Genre Jobs	Injury		χ^2 -Value (p Value)	Illness		χ^2 -Value (p Value)
	Yes	No		Yes	No	
Actor	4 (11.1)	32 (88.9)		1 (2.8)	35 (97.2)	
Movie Stunt	21 (52.5)	19 (47.5)	18.10 ¹⁾ (0.0001)	9 (22.5)	31 (77.5)	7.39 ¹⁾ (0.0249)
Staff	4 (16.7)	20 (83.3)		6 (25.0)	18 (35.0)	
Total	29 (29.0)	71 (71.0)		16 (16.0)	84 (84.0)	
TV Actor	2 (5.1)	37 (94.9)		2 (5.1)	37 (94.9)	
TV Stunt	17 (46.0)	20 (54.1)	27.96 ¹⁾ 8.41 ²⁾ (0.0001) (0.0149)	6 (16.2)	31 (83.8)	5.11 ¹⁾ 0.80 ²⁾ (0.0076) (0.6700)
Staff	-	24 (100)		6 (25.0)	18 (75.0)	
Total	19 (19.0)	81 (81.0)		14 (14.0)	86 (86.0)	
Play Actor	7 (11.7)	53 (88.3)		13 (21.7)	47 (78.3)	
Play Staff	6 (14.3)	36 (85.7)	0.89 ¹⁾ (0.6963)	6 (14.3)	36 (85.7)	0.89 ¹⁾ (0.3460)
Total	13 (12.8)	89 (87.3)		19 (18.6)	83 (81.4)	
Total	61 (20.2)	241 (79.8)		49 (16.2)	253 (83.8)	

- 1) The test statistics between jobs by each genre
- 2) The test statistics between genres

4.3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 직무 만족도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임금(월급여)수준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1점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이 일하는 시간과 근무환경 만족도는 임금

1) 식사시간 제외한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임,
 2)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한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정의함.

수준과 고용안전성보다 다소 높은 2.6점으로 나타났으나 본인이 일하는 직업(업무) 만족도는 3.5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르(영화, 방송, 연극)와 임금수준, 근무환경, 근무시간 만족도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Satisfaction

Genre	Jobs	n	M(SD)			
			WL	ES	WE	WH
Movie	Actor	36	2.1 (0.95)	2.2 (1.00)	2.3 (1.01)	2.5 (0.94)
	Stunt	40	2.6 (0.77)	2.3 (0.91)	2.3 (0.92)	2.2 (0.94)
	Staff	24	1.7 (0.92)	1.7 (1.01)	2.4 (0.97)	2.3 (1.12)
	Total	100	2.2 (0.95)	2.1 (0.99)	2.3 (0.96)	2.3 (0.99)
TV	Actor	39	2.2 (0.97)	1.9 (0.87)	2.4 (0.81)	2.4 (0.94)
	Stunt	37	2.5 (1.04)	2.4 (1.01)	2.6 (1.01)	2.5 (0.84)
	Staff	24	2.5 (1.1)	2.4 (1.13)	3.1 (0.97)	2.5 (1.1)
	Total	100	2.4 (1.03)	2.2 (1.01)	2.6 (0.96)	2.5 (0.94)
Play	Actor	60	1.8 (0.89)	2.1 (1.02)	2.8 (0.97)	3.3 (0.95)
	Stunt	42	1.9 (0.87)	2 (1.03)	2.8 (0.93)	2.7 (0.9)
	Total	102	1.8 (0.88)	2 (1.02)	2.8 (0.95)	3 (0.96)
Total	Total	302	2.1 (0.98)	2.1 (1.0)	2.6 (0.97)	2.6 (1.01)

1point: Very dissatisfied, 2point: Dissatisfied, 3point: Middle, 4point: Satisfied, 5point: Very satisfied (5point Perfect scor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WL: Wage Level, ES: Employment Stability, WE: Working Environment, WH: Working Hours

4.4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

본인이 하고 일과 관련해서 주변의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이 5점 만점에 2.3점으로 대체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화, 방송, 연극 장르에서는 물리적 및 환경적 작업환경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The work environment of physical and environment

Genre	Jobs	n	Physical		Environment	
			M (SD)	F or t-Value (p Value)	Mean (SD)	F or t-Value (p Value)
Movie	Actor	36	2.2 (0.89)		2.2 (0.93)	
	Stunt	40	2.3 (1.19)	0.59 ¹⁾ (0.8932)	2.3 (1.14)	0.27 ¹⁾ (0.7614)
	Staff	24	2.1 (1.08)		2.1 (1.12)	
Total	Total	100	2.2 (1.06)		2.2 (1.06)	
TV	Actor	39	2.5 (0.97)		2.6 (0.96)	
	Stunt	37	2.4 (1.04)	0.59 ¹⁾ (0.5585)	2.4 (1.28)	1.32 ¹⁾ (0.2707)
	Staff	24	2.7 (0.86)	5.83 ²⁾ (0.003)	2.8 (0.92)	4.87 ²⁾ (0.008)
	Total	100	2.5 (0.97)		2.6 (1.08)	
Play	Actor	60	2.3 (0.7)		2.1 (0.95)	
	Staff	42	2.2 (0.84)	0.56 ¹⁾ (0.5760)	2.3 (0.84)	-1.43 ¹⁾ (0.157)
	Total	102	2.3 (0.76)		2.2 (0.91)	
Total	Total	302	2.3 (0.94)		2.3 (1.03)	

1point: Very poor, 2point: poor, 3point: Middle, 4point: good, 5point: Very good (5point Perfect score)

1) The test statistics between jobs by each genre

2) The test statistics between genre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4.5 안전의식 및 안전실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안전인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먼저 본인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보통수준이며, 방송과 연극 종사자 보다는 영화분야 종사자가 안전의식 수준이 약간 높았으나, 영화, 방송, 연극 장르간 인식의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인과 같은 일의 하고 있는 동료와 일반국민의 안전의식은 어떠한지 질문에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보다 다소 낮은 각각 2.8점, 2.4점으로 안전의식 점수는 본인, 동료, 일반국민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르별간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동료 및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수준 질문에 대부분의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다소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장르

에서 스텐트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은 훨씬 더 높았는데, 특히 영화분야 스텐트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은 4.4점으로 매우 높았다. 장르간 위험수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The awareness and compliance of safety

Genre	Jobs	n	SA		SC		
			M (SD)	F or t-Value (p Value)	M (SD)	F or t-Value (p Value)	
Movie	Actor	36	3.4 (1.05)		2.8 (0.81)		
	Stunt	40	2.9 (1.21)	1.70 ¹⁾ (0.1884)	2.8 (0.98)	1.301 (0.2767)	
	Staff	24	3.2 (1.24)		2.5 (0.88)		
	Total	100	3.2 (1.17)		2.7 (0.9)		
TV	Actor	39	2.8 (0.94)		2.7 (0.77)		
	Stunt	37	3.4 (1.04)	4.95 ¹⁾ (0.0090)	3.2 (1.06)	4.581 (0.0126)	1.002 (0.3681)
	Staff	24	2.8 (0.83)		2.6 (0.92)		
	Total	100	3.0 (0.99)		2.9 (0.96)		
Play	Actor	60	2.8 (0.94)		2.6 (0.77)		
	Staff	42	3.2 (0.92)	-1.91 ¹⁾ (0.0596)	3.0 (0.87)	-2.411 (0.0177)	
	Total	102	3.0 (0.94)		2.7 (0.83)		
Total	302	3.1 (1.04)		2.8 (0.9)			

1point: Very lower, 2point: Lower, 3point: Middle, 4point: High, 5point: Very high. (5point Perfect score)

1) The test statistics between jobs by each genre

2) The test statistics between genr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A: Safety Awareness

SC: Safety Compliance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험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체적으로 안전조치 준수가 보통 이하인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났으며, 위험한 직종인 스텐트 종사자들 조차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르간 안전조치 준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질문에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95.4%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앞서 안전의식, 안전조치 준수가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할 수 있었다.

4.6. 주관적 자각증상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의 자각증상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적어도 1개 정도 신체의 자각증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영화, 방송 장르에서 스태프 종사자가 연기자, 스텐트 종사자가 느끼는 자각증상 수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자각증상수는 장르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The Number of subjective symptoms

Genre	Jobs	n	SN		F or t-Value (p Value)	
			M	SD		
Movie	Actor	36	0.61	1.25		
	Stunt	40	1.20	1.10	4.276 ¹⁾ (0.0170)	
	Staff	24	1.25	1.39		
	Total	100	1.00	1.25		
TV	Actor	39	0.51	0.88		
	Stunt	37	1.11	1.20	2848 ¹⁾ (0.0631)	0.065 ²⁾ (0.937)
	Staff	24	1.46	1.91		
	Total	100	0.96	1.35		
Play	Actor	60	0.97	1.51		
	Staff	42	0.88	1.42	0.084 ¹⁾ (0.773)	
	Total	102	0.93	1.46		
Total	302	0.96				

1) The test statistics between jobs by each genre

2) The test statistics between genre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N: Symptoms Number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각증상이 직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연기자는 주로 위통복통 등 속이 아픔, 불면증, 전신피로이며, 스텐트는 통증, 관절염·관절이상·연골소실, 요통이며, 스태프는 전신피로, 통증, 두통,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자각증상에 대한 심각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각증상과 작업관련성, 그리고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에는 각각 평균 4.30, 4.1점으로 나타났다.

4.7 직무스트레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본인이라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축소형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7개 요인)를 통해 알아본 결과, 남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직업군은 영화분야 종사자로 51.5점, 방송분야 종사자가 46.8점, 연극분야 종사자가 44.4점 순이었다. 특히 영화분야 종사자는 잠재적 위험군에 속

해 있었다. 장르별로 보면, 먼저 영화부문에서는 7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불안정, 직무요구, 관계갈등이 고위험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잠재적 위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조직체계, 직장문화, 직무자율결여로 나타났다. 방송부문에서는 고위험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직무요구, 조직체계이며, 연극부문에서도 마

찬가지로 고위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없었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무요구, 관계갈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정, 동료와 상사간의 관계갈등, 직무요구 그리고 불합리적인 조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6> The jobs stress(Male)

Genre	Jobs	n	Total		JD		JS		RC		JI		OS		IC		WC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ovie	Actor	26	53.6	14.73	46.8	13.96	58.3	23.09	46.2	23.09	73.1	23.09	60.9	23.09	50.9	23.09	39.4	23.52
	Stunt	38	49.9	8.82	58.8	13.55	41.2	15.49	38.9	15.49	64.0	15.49	52.9	15.49	46.8	15.49	46.9	14.93
	Staff	17	51.8	13.59	64.2	19.49	33.8	26.43	37.9	26.43	78.4	26.43	56.9	26.43	44.4	26.43	46.6	22.45
	Total	81	51.5	11.98	56.1	16.35	45.2	22.55	41.0	22.55	70.0	22.55	56.3	22.55	47.6	22.55	44.4	19.72
TV	Actor	17	48.8	8.32	43.1	18.45	52.5	22.39	41.8	14.97	62.7	23.22	55.4	12.13	47.1	16.91	39.2	18.58
	Stunt	34	47.8	9.95	53.7	12.17	46.3	16.56	36.9	13.60	60.8	18.75	50.5	17.16	45.1	15.70	41.2	15.21
	Staff	10	40.1	10.14	55.8	18.02	25.0	19.25	35.6	15.54	53.3	20.49	41.7	9.62	41.1	18.92	28.3	15.81
	Total	61	46.8	9.88	51.1	15.70	44.5	20.58	38.1	14.27	60.1	20.25	50.4	15.32	45.0	16.41	38.5	16.68
Play	Actor	32	42.9	7.67	39.8	13.84	35.2	14.16	32.3	15.29	65.6	21.97	52.3	12.92	40.3	15.39	34.9	13.46
	Stunt	28	46.0	10.09	56.8	18.29	28.3	17.47	38.9	16.97	64.9	19.43	54.8	12.09	40.5	17.69	38.1	19.83
	Total	60	44.4	8.94	47.8	18.08	31.9	16.03	35.4	16.30	65.3	20.65	53.5	12.49	40.4	16.36	36.4	16.66
Total	202	48.0	10.91	52.1	16.98	41.0	20.96	38.4	15.80	65.6	21.17	53.7	16.37	44.7	18.24	40.3	18.21	

<Table 7> The jobs stress(Female)

Genre	Jobs	n	Total		JD		JS		RC		JI		OS		IC		WC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ovie	Actor	10	47.9	9.64	44.2	10.43	56.7	21.44	44.4	15.71	46.7	30.23	60.8	18.86	46.7	23.31	35.8	18.02
	Stunt	2	35.1	0.84	25.0	0.00	33.3	11.79	33.3	0.00	33.3	0.00	41.7	11.79	33.3	0.00	45.8	5.89
	Staff	7	53.5	10.42	57.1	11.21	47.6	25.33	50.8	16.80	71.4	18.54	61.9	14.32	46.0	14.95	39.3	20.81
	Total	19	48.6	10.60	46.9	13.95	50.9	22.55	45.6	15.67	54.4	27.69	59.2	17.10	45.0	19.06	38.2	17.85
TV	Actor	22	48.9	11.80	40.2	9.50	60.6	20.76	48.0	21.79	57.6	18.35	53.8	15.37	47.0	16.06	35.2	18.71
	Stunt	3	50.7	4.17	61.1	19.25	66.7	14.43	33.3	0.00	66.7	16.67	38.9	9.62	40.7	12.83	47.2	4.81
	Staff	14	43.3	10.19	66.7	21.43	37.5	17.22	28.6	17.28	63.1	28.63	41.7	15.33	37.3	13.51	28.6	14.51
	Total	39	47.0	11.02	51.3	19.83	52.8	22.08	39.9	21.28	60.3	22.17	48.3	16.02	43.0	15.33	33.8	17.09
Play	Actor	28	46.0	8.20	46.7	12.49	38.7	13.07	36.5	16.52	68.5	17.18	53.6	13.50	43.7	17.61	34.5	17.08
	Stunt	14	41.8	8.29	59.5	14.57	25.0	20.41	32.5	13.41	56.0	12.42	48.2	15.04	33.3	15.10	38.1	15.92
	Total	42	44.6	8.37	51.0	14.40	34.1	16.95	35.2	15.50	64.3	16.70	51.8	14.08	40.2	17.34	35.7	16.59
Total	100	46.3	9.93	50.3	16.58	44.6	21.88	39.0	18.25	60.8	21.37	51.8	15.78	42.2	16.86	35.4	16.93	

JD: Job Demand, JS: Job Self-control, RC: Relationship Conflict, JI: Job Instability, OS: Organizational Structure, IC: Inadequate Compensation, WC: Workplace Cultur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여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직업군은 영화분야 종사자로 남성보다 다소 낮은 48.6점, 방송분야 종사자가 47점, 연극분야 종사자가 44.6점 순으로,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없었다. 장르별로 보면, 먼저 영화부문에서는 7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불안정이 고위험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잠재적 위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관계갈등, 직무자율결여, 조직체계이며, 방송부문에서는 고위험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불안정이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으로 나타났다. 연극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불안정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정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무에 대한 요구,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스트레스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남성의 경우 7개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장르간, 직종간 분산분석을 한 결과, 장르간(영화, 방송, 연극)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요구, 직무자율결여,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요인이며, 영화부문 장르에서 직종(연기자, 스타트, 스태프)간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직무요구, 직무자율결여, 직무불안정, 직장문화이며, 방송부문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결여이고, 연극부문에서는 직무요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장르간, 직종간 분산분석을 한 결과, 장르간(영화, 방송, 연극)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자율결여와 조직체제로 나타났으며, 영화부문 장르에서 직종(연기자, 스타트, 스태프)간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율결여이며, 방송부문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이고, 연극부문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율결여로 나타났다

5. 결론

영화방송예술분야 종사자 직업안전보건 실태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의 남성이며, 미혼이라는 인적 특성을 가진다. 근로조건상 발견되는 특징은 장시간 노동과 1주일에 약 2일 정도는 저녁 10시 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작업(일)하는 근무, 그리고 낮은 임금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근로조건과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장시간 근무, 그리고 저임금 구조 속에서도 직업(일) 자체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권익보호 단체에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응답자의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작업(일)으로 인한 사고(부상) 경험은 10명중 2명이 사고 경험을 했었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은 충돌, 떨어짐, 미끄러짐과 넘어짐으로 인한 타방상과 골절상이며, 가장 높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장르는 영화부문이며, 또한 직종은 업무의 특성상 스타트(대역) 연기자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작업(일) 강도와 속도는 힘들고,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일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적었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1점, 동료의 안전의식은 2.8점,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2.4점으로 대체적으로 안전의식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는 본인의 안전의식이 낮게 때문에 동료도 일반국민도 안전의식이 낮을거라는 막연히 잠재적인 인식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작업(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수준 정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조치준수 점수는 이보다 낮은 2.8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전형적이고 아주 위험한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 안전의식 고취 및 태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4%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눈높이 맞춤형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자각증상은 적어도 1개 이상 호소하고 있었으며, 주로 느끼는 신체적 자각증상은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통과 복통 등 소화기계통, 전신피로감, 불면증(수면부족), 통증(손, 어깨, 팔 등)과 관절계통, 두통 등이며, 이러한 자각증상이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일)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성(4.2점)이 있으며, 심각(4.2점)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업에 대한 불안정, 직무요구, 상사와 선.후배 동료간의 관계갈등, 조직체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책적 보호방안

6.1 산업재해예방 정책대상 포함

영화방송 예술분야는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 비해 산업안전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노동자보다는 방송인 및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들의 작업(일)은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제작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민법상의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노동관련법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방송 예술관련 정책의 주된 관심 영역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에 있지 이들의 작업(노동)에는 큰 정책적 관심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방송 예술분야 노동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였고, 산재예방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대상과 범위가 포함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6.2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 표준업무 가이드 개발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하는 인력의 노동시간은 유연적이고 불규칙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영화방송 프로그램은 일정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지 않는다. 이는 제작 일정에 따라 촬영 장소와 시간이 수시로 변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 촬영의 경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출장지에서의 노동시간은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밤샘 작업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영화방송 산업 장르별, 프로젝트별, 직종별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식사 제공, 야간작업 등 표준 업무에 따른 세부 근로계약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6.3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현실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 중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특정 사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아닌, 작품당 계약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그런데 이들의 근로과정에서 발견되는 근로 자율성은 일부 감독이나 기사급과 팀장에 해당되는 퍼스트급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영화방송 노조가 제작 인력중 감독급을 제외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다[5,6]. 문제는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지위에 놓여있는데,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라는 미명하에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각종 노동법제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2]. 그리고 포괄임금제 등의 적용에 따라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작업(일)로 인한 사고(부상)시 치료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5].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존 판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여부를 살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전 판단기준 중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9]. 영화방송 예술분야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다루어진 사안으로 한국방송공사 드라마 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 제작 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 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외부제작 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9].

영화방송 예술분야의 프리랜서의 경우도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영역에 따른 차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은 다르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 요원 사례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4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 필요

영화방송 예술분야 남성과 여성종사자 모두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영역에서 한국 해당 성별 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임금과 보상에 있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일)에 대한 선호도, 창의성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정신적 스트레스 보다는 오히려 조직체계 및 상사동료(직종)간 관계갈등, 고용불안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신체적 자각증상은 적어도 한 개 이상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장시간 및 잦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불규칙한 작업과 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통과 복통 등 소화기계통, 전신피로감, 불면증(수면부족), 통증(손, 어깨, 팔 등)과 관절계통,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각증상이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일)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건강보호 방안으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함께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금연, 절주) 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야간작업시간 준수, 규칙적인 식사시간, 작업시간에 따른 일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6.5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의무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상 등 사전, 또는 사후에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로 전혀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 본인 또는 동료의 안전상 필요한 관리 및 조치도 미흡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장르별, 직종별로 작업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겠고, 또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도 함께 관리 및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6.6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치 강화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액션 장면 촬영, 열악한 촬영환경 등으로 사고나 상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션장면 촬영의 경우 낙마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고, 자동차 폭발 썬, 충돌 썬, 자동차 질주 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이나 야외에 와이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미끄러운 무대, 높은 곳에서의 촬영, 조명세트의 낙하 등의 열악한 촬영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로 설치된 세트장이라 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작업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7. References

- [1] Korean Film Council (2010), "Korea Film Industry Survey and Korea film investment profitability analysis", p. 238.
- [2] J. U. Hwang, H. J. Kwon, Y. M. Kim, J. S. Park and J. R. Nam (2009), "Freelance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Focusing on film industry and IT industry", Korea Labor Institute, p. 215.
- [3] J. G. Lee (2009), "Labor Conditions of Temporary Workers in Broadcasting Industry",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Vol. 15, pp. 273-313.
- [4] J. G. Lee (2006), "Non-regular labor market research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p. 207, 2006.
- [5] I. H. Kang (2004), "Research on the Non-regular labor Status and Improvement of broadcasting industry", Communication Books, p. 180.
- [6] I. H. Kang (2011),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Broadcasting Production staff",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p. 311.
- [7] S. U. Lee (2007), "A Labor infringement survey report in Special Employment Worker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 401.

- [8] D. H. Kim (2012),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report of movie site staff”, Korea Film Council, p. 154.
- [9] K. H. Yi and H. H. Cho (2012), “Study on protections of workers involved in specific types of works through policies especially those in the movie, broadcasting and art sector”, Dept. of Safety Management and Policy Research, OSHRI, p. 217.

저 자 소 개

이 관 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이학박사)으로 재직 중이고, 관심분야는 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개선, 규제정책, 안전문화, 안전보건 경영 및 관리 등이다.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